

‘광주인권상’ 수상 문정현 신부

“광주의 5·18재현 노력 감동 후대가 그 정신 느끼게 해야”

“광주에서 와서 5·18기념문화관, 관련 자료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이 같은 노력들이 있어 5·18민중항쟁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길 위의 신부”로 불리는 문정현(72·사진) 신부는 17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기념재단에서 상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이라고 평가했다.

문 신부는 마지막으로 “동학혁명 등 그동안 수많은 민중항쟁들이 지배자들의 탄압으로 왜곡되어 왔다”며 “역사가 제대로 왜곡되어서도 안 되지만 일부러 가르쳐도 안 된다. 5·18은 우리가 느낀 그대로 접근해 자연스럽게 후대가 그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산이 고향인 문 신부는 지난 1966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1974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결성을 주도했고 1976년 3·1구국선언 사건으로 구속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후 매항리 미군폭격장, 이라크파병반대, 광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과 함께 생명과 평화를 위한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사진=나명주기자 mjna@



유족들 헌화·분향 17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제32주년 추모제에서 유족회원들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젊은 문화예술인 기획·참여 눈길

“5·18역사 배우자” 서울 대안학교 학생 19명 도보로 광주까지 대장정

5·18 32주년 이모저모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오월의 바람이 다시

세상을 깨우라’를 주제로 열린 5·18민중항쟁 제32주년 전야제에는 과거와 달리 20~30대 젊은 문화예술인이 직접 기획·참여해 눈길.

풍물패의 풍물굿과 전통문화연구회 일수의 복치기로 시작한 본 공연은 오월 영상과 창작 판소리, 화가 허달용의 오월 퍼포먼스, ‘오월 그리고 오늘’을 제목으로 전통 국악과 깃감, 무용 등의 순으로 열려 시민들이 호응.

강운대 광주시장의 인권도시 선언, 노동계, 유명 연예인, 여고생 등이 전하는 희망메시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린 이날 전야제는 ‘삼복수’, ‘선구자’,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을 끝으로 대미를 장식.

금남로 주먹밥 다시 등장

○전야제에 앞서 금남로 일대에 마련된 문화라운지에서 당시의 기억을 더듬는 오월 아카이브전을 비롯해 오월 예술가전, 기억의 시간(5분27초 묵념), 5월 도사전, 오월 퍼포먼스 등



공무원 200명 릴레이 헌혈 17일 오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시 공무원 200여명이 헌혈에 참여해 오월 정신을 기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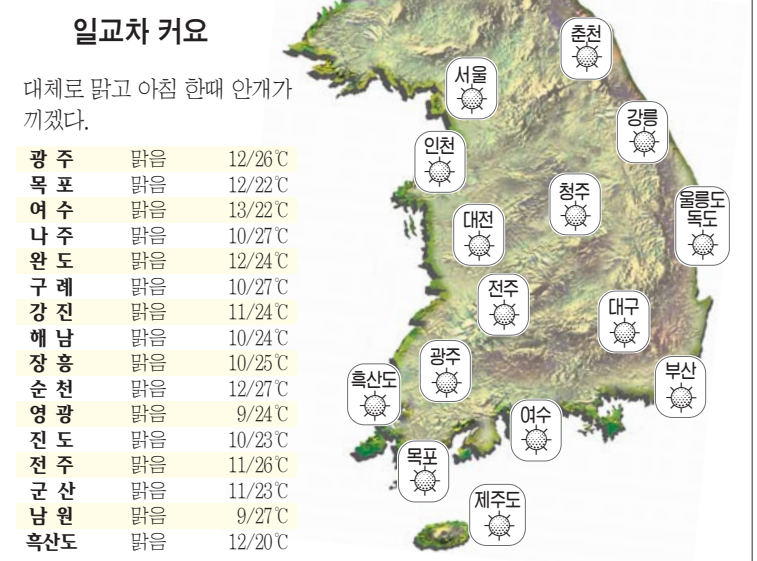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details for Jeonju, Gwangju, and other regions, including sea temperature, wind speed, and precipitation.

도 개최,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눠 먹고 공정무역으로 수입된 커피를 마시며 80년 5월 당시 나눔의 현장을 재연하기도.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유족회 주관으로 추모제가 열려 오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

○서울에 위치한 대안학교인 숲나학교 학생 19명이 지난 5일 서울 등

작구 상도동을 떠나 광주까지 걸어 전야제에 참석.

“우리가 기억할게요. 오월 광주”이라는 주제와 함께 도보행진을 마친 숲나학교 5·18 도보순례단은 5월을 맞아 5·18의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하기 위해 대장정에 나서 이번 공부행진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전제모임을 갖고 민주주의 역사를 공부하기도.

이들은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KJB (Korea Job Bank) celebrating 30 years with a 30% discount on services. Includes contact numbers for various branches.

Large advertisement for JAUtour (자유투어)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to destinations like Jeonju, Gwangju, and Jeju Island. Includes prices and package details.

Footer section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예/약/상/담, 북구점, 상무점, 시청점, 동구점, 하남점, 목포점, 광양점, 전주점.